

† 마데라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라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 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기다린다.

신 윤 식

오늘도 가만히 기다린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노을이 지고 밤이 오고

또 새벽이 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간다.

무엇을 해야만

그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속의 마음이 외친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찌겠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분이 내 속에 질러놓은 불

불붙은 가슴으로 기다린다.

그 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9

발행호수 제19권 2호

결 혼과 이혼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남녀가 겪는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남녀는 결혼을 하기 마련이고, 결혼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끝까지 백년해

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그렇게 큰 흠이 아니라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혼은 여자에게는 큰 흠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는 참고 견딤으로써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결혼 실패라는 약점을 안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스스로 감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성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이혼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혼문제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의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이야말로 ‘절대 이혼 불가’라는 원칙을 세우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이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음행한 연고로만 이혼이 가능할 뿐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서로 맞지 않고 불화가 잦은데도 꼭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주일오전설교
마 19:1-9

천국과 이혼

요? 표면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문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결혼의 법칙은 각기 다른 두 몸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현실은 각기 다른 두 몸으로 살 뿐입니다. 부부가 되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내 몸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즉 한 몸이 아닌 각기 다른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부부라고 해도 이혼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 시각입니다.

창 2:23절의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나라”는 아담의 말은 죄짓기 전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각기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몸의 가치를 위해 사는 인간이 되었고 그것이 곧 인간의 분리이며 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한 몸이라는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부부가 되어 사이 좋게 지낸다고 해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속성일 뿐입니다. 때문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 신자가 배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단순히 우리의 가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두 가지의 답만 예상했을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시면 아내를 버리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뒤엎는 모순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에서의 가르침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 5:31,32)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르다’ 라고 하시면 신 24:1절부터 말하고 있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 는 규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몰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린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당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이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 라는 존재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몸은 존재하되 ‘나’ 라는 자아의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당치 않은 욕망일 뿐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정당할 수 없는 존재고 오직 죄인이라는 본질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셈만 있을 뿐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수준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결국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은, 이혼증서만 주면 아내 버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의 행복을 추구하는 완악함으로부터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아내 버리는 것을 정

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자기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아내를 고르는 것으로만 여길 뿐, 결혼을 통해서 알아야 할 몸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를 단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라는 시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결혼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 그런 후회를 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서로에 대해 실망하거나 불화가 있을 때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좀 더 나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의 마음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처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자신의 정당성을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자의 이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서로가 자신의 행복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혼합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는 말씀은 인간의 육체와 육체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 없는 새로운 몸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몸의 관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고, 신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부다운 신부인가 하면 전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있게 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를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시고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서로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한 몸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는 그 때만 사랑의 느낌이 있을 뿐, 자기 행복을 훼방하는 장애물로 여겨지는 순간은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대상으로 볼 뿐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완악함과 함께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만 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완악함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당하지만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정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자입니다.

9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신랑이 아닌 항상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한 몸의 관계로 붙들고 계시는 은혜로 인해 천국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사는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화해의 길

(3강 12.19일 설교)

빌 레몬서의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의아한 점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빌레몬이 어떻게 노예를 둘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에는 노예를 둘 수 있어도 복음을 알았다면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링컨 대통령처럼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는 당연한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라는 것이 없고, 또한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인간을 노예로 취급한다면 비난을 받게 되지만 빌레몬 당시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알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에게서 바울에 대한 말을 들었을 수 있고, 바울이 빌레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돕고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악한 노예였지만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말한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11,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친 신분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말도 없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냥 돌려보내면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를 위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으니 같은 신자로서 별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단편적인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함으로써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관계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명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말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8-10절)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빌레몬도 바울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네시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빌레몬은 단지 사도의 말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만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보게 합니다. 예전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했다면, 빌레몬은 바울의 명령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비록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도의 명령에 대한 실천일 뿐 노예에 대한 옛 시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관계를 알게 되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명령에 대한

실천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의한 실천이며 행함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목사가 교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합니다.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며 복음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권위 아래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벗어나 형성되어 있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면 빌레몬과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형제라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극과 극의 사회적 신분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형제라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의 독특성입니다. 이 독특성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사회적 신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돈은 결코 힘이 될 수 없으며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돈을 추구하고, 힘 있는 교회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도 그렇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복음 안에 있는 관계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노예로 여겼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마음 한번 먹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인간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보게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18,19절을 보면 빌레몬이 사도에게 빛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이 빛은 빌레몬이 값을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빛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빌레몬이 사도에게 빛진 것은 누가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빛진 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진 빛은 어떻게든 값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진 생명의 빛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값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에게 빛진 자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빌레몬이라는 인간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함께 하고 그를 돕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관계로 만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의 세계를 보게 함으로써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함께 하고, 이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신자에게서 증거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세상을 멸절하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수요일설교

스 2:1-3

**수치를
모르는 백성**
(2장 12.29일 설교)

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절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서도 발견된다면 '나 역시 멸망을 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1:4-6).

유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성실히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 성전에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모이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

1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아도 모일지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부지런히 모였으며 하나님은 그 모임을 부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인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써 행하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규례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고, 그것은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 행하는 제사는 단지 종교 의식일 뿐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종교 의식 자체를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유다가 제사라는 종교 의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여긴 것과 같습니다. 결국 종교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예배당에 모이고, 그것을 신앙으로 간주하는 현대 교회나 멸망을 받은 유다가 같은 수준에 있다면 현대 교회 역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치를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 나올 때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것이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의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자신의 속이 아니라 겉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불의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의하고 더러운 존재로 표현을 하면 찡찡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속을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얼마든지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위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속입니다. 만약 자신의 속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떴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자격조차 없음을 압니다. 오직 수치를 덮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2절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이다”** 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수치를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수치를 아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겸손을 구하라는 말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실상은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겸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자기 수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치를 모른다면

아무리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위장하고 겸손한 척해도 교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은 의롭지 못하고 교만한 존재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겸손은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 교인들이 여호와를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할까요?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높임 받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구할 뿐이지 공의와 겸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은 자기 수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수치를 안다면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돈도 권력도 아님을 알 것입니다.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탄다고 해서 수치가 가려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수치가 가려지고, 자신의 교만을 알기 때문에 겸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자를 분노의 날에 숨기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드러내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어김없이 잊고 있었던 우리의 수치가 발각되고 드러남을 실감하십니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도 수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되어 굳게 감추어질 뿐입니다. 돈과 권력 또한 수치스러운 인간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수치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에 공호와 자비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말씀은 교만한 자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멸망에 해당하는 우리의 실재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롬 1:29-32절을 읽어 보십시오. 왜 자신을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실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앞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신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백성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620장
교 독 : 60(시139)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01장
성 경 : 마 19:1-9
말 씬 : 천국과 이혼(12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5장
기 도 : 한옥섭 집사
찬 송 : 433장
성 경 : 행 2:1-4
말 씬 : 성령 강림(성령 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9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바냐 강해(4강)

■ 교회소식 ■

1. 이사하였습니다. (송재관 집사님 가정)
대구시 북구 읍내동 E 편한세상 104/1404



다음주 기도

오전 이성희 장로 오후 김옥자 집사

앞과 뒤가 다른 목사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종종 목사들의 일탈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이름만 대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만한 유명 목사의 일탈도 있다. 우리는 목사의 일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떤 이는 '목사도 사람이다' 는 말로 그냥 묵과하려고 하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암묵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랑' 이라는 말을 앞세우기도 한다.

나는 고2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때 나에게 목사는 거룩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거의 천사와 동급으로 여겼고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존재로 여길 정도였다. 목사들을 교회라는 공적인 공간에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목사의 솔직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은 소위 목회자가 되면서부터이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의 세계를 접하게 된 내 눈에 보인 목사의 실체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교회 앞마당과 교회 뒷마당에서의 목사의 모습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더 충격이 되었던 것은, 거의 대다수의 목사가 자신들에게서 드러나는 큰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대상에서는 천국을 선포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온갖 윤리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이들의 뒷모습은 신앙적이지 못하고, 하다못해 윤리적이지도 못하다. 오히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보다 더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기반 위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기를 열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며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성찰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다. 하다못해 신앙 양심도 없이 오직 자기 욕망만을 좇을 뿐이다. 이러한 실상을 목사의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때문에 목사에게 가당치 않은 아우라를 덧씌워 바라본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단에서는 신앙과 양심과 윤리를 외쳐대면서 마치 거룩의 상징인 것처럼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만의 세계에서 신앙은 너무나 희박하다.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존에 대한 불안과,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교회라는 터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의 관심과 신앙 방향이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복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무지는 진리의 무능력, 신앙의 무능력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것이 목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도 역시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라는 인간을 신뢰할 것도 못된다. 목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움을 보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수치 뒀을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자신은 지옥을 향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바라볼 것은 오로지 예수님 밖에 없다.